

# 인형새끼 여성성

에서도 어느덧 화사한  
인 느낌 탓일까? 어쩐지  
달리 요즘엔 부쩍 아  
여자니 하는 차별을 찾  
된 우리는 왜 여자라는  
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받아보고서 한장 한장  
손이 동시에 멈춘 페이  
즘이 시선을 끌었고 『아  
이군!!』이라는 글 또한  
대 한 몫 했다.

과 함께 있다 보니 이젠  
봐도 아이들이 원하는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  
아이들과 엄마놀이, 소  
있는가 하면 여자아이

의 차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리 어른들이 『성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  
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입시키고 있는 격이다.

예쁜 인형을 갖고 노는 남자아이의 손에서  
형을 빼앗는 엄마, 무전기를 들고 허리춤에는  
을 차고 경찰놀이를 하는 여자아이의 행동을  
지 시키는 아빠 등등

남과 여를 구분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외모  
명확한 선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한사람  
생각과 능력이 아닐까 싶다. 한참 메스컴을 통  
외모를 보고 사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얘기가  
었다. 그 사람의 능력은 뒷전이고 우선은 외모  
중요한 회사측, 그러나 인간은 간판이 아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 남자를 구분짓게 하는 것은 어른된 우리  
장에서 바로 고쳐야겠다는 생각 간절하다.

앞으로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  
이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고, 받고 하는 것은

1995 • 4

24 호